

## 인쇄단체 · 기관뉴스

### 1 동정

- ▶ 이학래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가 최근 한국펄프종이공학회 회장에 취임했다.
- ▶ 김현덕 아이엔지 대표가 최근 열린 경기도인쇄문화협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 2 화촉

- ▶ 노이남 영세사진문화 사장의 장녀 민희양이 지난 5월 1일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화촉을 밝혔다.
- ▶ 신오식 (주)일진커뮤니케이션 사장의 차남 승범군이 지난 5월 2일 코엑스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화촉을 밝혔다.
- ▶ 최종철 청림문화사 사장의 차남 이원군이 지난 5월 2일 L.C.I. 웨딩홀에서 화촉을 밝혔다.
- ▶ 박현출 월드인쇄 사장의 장녀 혜정양이 지난 5월 8일 메이퀸컨벤션에서 화촉을 밝혔다.
- ▶ 김정만 (주)명진문화 사장의 장녀 소영양이 지난 5월 8일 베라체 웨딩홀에서 화촉을 밝혔다.
- ▶ 정송택 신성기획인쇄사 사장의 삼남 태삼군이 지난 5월 15일 라루체에서 화촉을 밝혔다.
- ▶ 길경호 하이포프린티(주) 사장의 장남 태은군이 지난 5월 22일 노블레스 웨딩컨벤션에서 화촉을 밝혔다.

### 3 부고

- ▶ 권방우 동양문화인쇄 사장의 모친이 지난 5월 8일 별세했다.

### 4 변경

- ▶ 삼화당정만(주)대표이사 이석남은 최근 상호를 (주)삼화당피앤피로 변경했다.
- ▶ 필경사인쇄정보(주)대표이사 남중현은 최근 상호를 필경사디지털인쇄(주)로 변경했다.
- ▶ 일흥인쇄(주)대표이사 허미원은 최근 상호를 (주)일흥피앤피로 변경했다.

## 인쇄 4단체장 특별회의 개최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이충원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조정석 서울인쇄정보조합 이사장, 김진배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 회장 등 인쇄 4단체장은 매월 정기



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인쇄업계의 주요 현안들을 논의해 오고 있다. 4월 정기 인쇄 4단체장회의는 지난 4월 11일에 이미 개최된 바 있으나 이례적으로 지난 4월 28일 11시에 연합회 회장실에서 두 번째로 개최되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4단체장 특별회의에서는 △인쇄물제값받기운동본부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 △인쇄용지 급등에 따른 대책 협의 △인쇄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세계인쇄문화박물관 건립 추진에 관한 사항 △인쇄산업 사업영역 피해사례 현황 파악 및 대책 협의 등 인쇄관련업계 현안에 대한 의견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 인쇄 · 출판단체장 '세계인쇄출판박물관' 건립 논의

가칭 '세계인쇄출판박물관' 건립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과 백석기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이기웅 파주출판도시재단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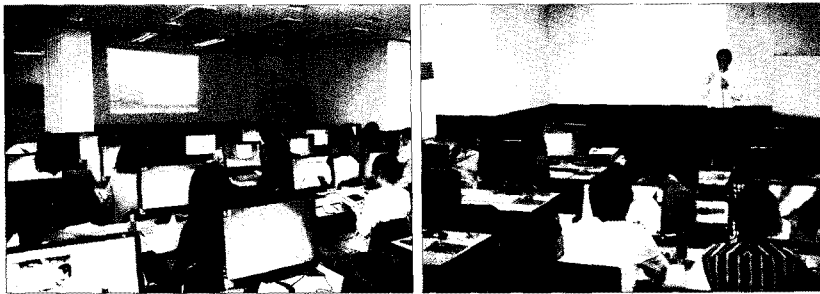


사장, 윤형두 출판진흥재단 이사장(배석 : 유창준 인협 전무이사, 박익순 출협 사무국장, 이환구 파주출판도시재단 상무이사)은 지난 4월 30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한식당 선천에서 만나 가칭 '세계인쇄출판박물관' 건립추진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홍우동 회장은 "우리나라의 랜드 마크로 세계인쇄출판박물관이 건립되어야 하며 인쇄출판계가 힘을 합쳐 추진하면 정부와 국회의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효과적일 것"이라면서 "관광명소화 하고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 이기용 이사장은 “국립 형태의 대단위 박물관을 건립해야 하며 장소 등은 열린 자세로 출판·인쇄계가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윤형두 이사장은 “우리의 인쇄·출판 역사가 세계의 으뜸인 만큼 이를 잘 홍보하면서 박물관 건립에 나서자”고 말했다. 백석기 회장은 “박물관 건립이 시급하지만 모두가 뜻을 모으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단체장들은 인쇄·출판 단체의 실무자 한명씩을 선정해 기초 작업을 한 후 마스터 플랜을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 인협, 인쇄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인쇄전문 인력양성 무상 교육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실시하고 있다. 인디자인 편집실무(매주 목요일), 디지털인쇄 실무(매주 금요일) 등 2개 과목을 개설했으며, 5월 13일부터 6월 11일까지 4주간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관련교재 또한 무상 제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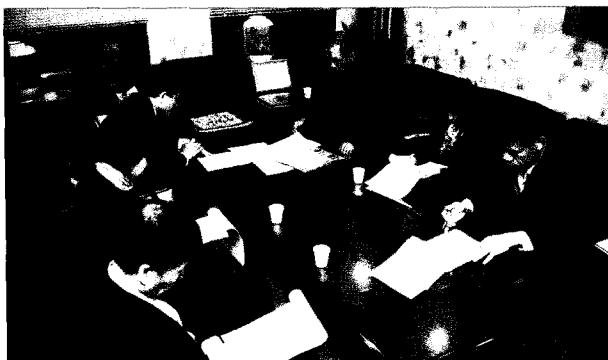
한편 인협은 하반기에도 인쇄물수출전문가 양성과정, 편집·교정 실무 과정의 교육 과정도 마련하여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을 원하는 사람은 교육신청서를 인협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무국으로 접수하면 된다. 1과정 당 25명씩 선착순 마감한다.

홈페이지\_ www.print.or.kr, 전화 (02)335-5881

### 인협, 편집 교정사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회의 개최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는 지난 4월 26일, 5월 7일에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의실 편집 교정사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회의를 개최했다.

연구위원으로는 금창연 동원대 교수(책임연구원), 오성상 신구대 교수, 박몽구 순천대 교수, 문연주 아주대 연구원(공동연구원), 공주영 작가(보조연구원), 유창준 대한인쇄문화협회 전무이사가 참여했으며 편집교정사 자격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5 이전

- ▶ **산광제이엔케이**(대표 박준후)는 최근 사업장을 금천구 가산동 60-3 대륭포스트타워5차 B206호로 이전했다. 변경된 전화 번호는 02-2624-3450이다.
- ▶ **룩케이뮤니케이션**(대표 박영숙)은 최근 사업장을 강남구 논현동 56-11로 이전했다.
- ▶ **자연DPS**(대표 김세현)는 최근 사업장을 중구 충무로5가 22-2로 이전했다.
- ▶ **한양기업**(대표 박재은)은 최근 사업장을 중구 충무로4가 306 남산센트럴자이 413호로 이전했다.
- ▶ **창조기업**(대표 원명수)은 최근 사업장을 중구 충무로4가 147-2로 이전했다.
- ▶ **진테크**(대표 권영진)는 최근 사업장을 금천구 가산동 550-1 아이티캐슬 5층으로 이전했다.
- ▶ **우진피앤피**(대표 신정자)는 최근 사업장을 성동구 행당동 287-15 이스타빌 1119호로 이전했다.

### 6 창성

- ▶ 본지 90호 화축년의 서진인쇄사 강성덕 사장의 ‘장남 성화 군은 ‘장녀 수정 양이 엮기에 바로잡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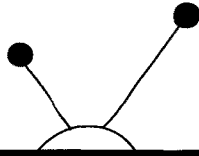
### 이상봉전, 청주 한국공예관에서 열려

패션디자이너 이상봉의 작품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가 5월 7일부터 30일까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한국공예관에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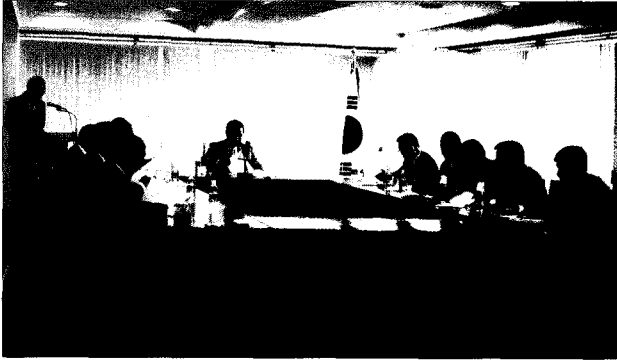
이번 전시는 이상봉이 디자이너 활동을 시작한 지 30년, ‘이상봉’ 브랜드 창립 25주년을 기념하는 전시였다.

한국공예관 2,3층 전관에서 열린 이번 전시는 작가의 삶과 문화, 작품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그동안 이상봉이 열정과 기예를 다 바쳐 디자인으로 표현해 온 작품 100여 점을 선보였으며, 디자이너로서의 걸어온 길을 엿볼 수 있도록 꾸몄다. 강렬하고 모던하면서 한국의 전통미를 지닌 김연아 드레스와 시인 김남주 등 국내 대표적인 문화인들로부터 영감을 얻은 작품 등을 다양하게 선보였다.

이번 전시가 청주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씨가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홍보대사를 맡으면서 인연을 맺었기 때문이다.



### 이사장협의회, 용지가격인상철회 요청 등 논의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협의회(회장 이철안 울산경남인쇄조합이사장) 총회가 지난 5월 14일 3시30분 서울인쇄조합 7층 강당에서 열렸다. 총회는 2010년 4월말 결산보고, 이사장협의회 임원선임, 기타사항으로 인쇄물 제값받기 운동본부설치, 인쇄용지 가격인상 철회 요청 건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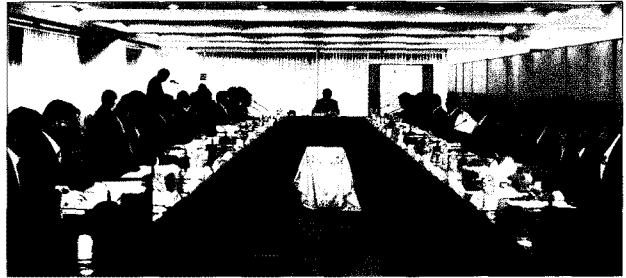
임기가 만료된 이철안 이사장을 대신해 이완표 경기조합 이사장이 회장에, 구자빈 대전조합이사장이 부회장에, 함청 전북조합 이사장이 감사에 만장일치로 선임됐다. 이사장협의회 회장에 선임된 이완표 이사장은 “능력있고 기라성같은 분들도 계신데 제가 회장직을 맡게 되어 민망할 따름입니다. 봉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인쇄물 제값받기 운동본부 설치에 대해서는 연합회에 인쇄물 제값받기 운동본부를 설치하고, 서울인쇄조합에서 제작한 포스터와 표어 등을 각 지방조합 회원사들이 부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위원장은 연합회장이, 위원은 각 조합의 이사장들이 맡기로 했다.

인쇄용지 가격인상 철회요청에 대해서는 단체장 및 각 조합 이사장 연명으로 제지연합회와 4개 제지회사(한솔제지 무림페이퍼 한국제지 흥원제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문을 발송키로 했다.

건의서에는 “언론매체를 이용해 국제펄프값 인상을 빌미로 인쇄용지를 가격상승을 당연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각 제지회사가 1개월 사이에 13~16%나 동시에 인상한다는 것은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와 담합”이라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인쇄용지가격 인상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 서울인쇄조합 이사회 개최



서울인쇄정보조합(이사장 조정석)의 이사회가 5월 4일 인쇄정보센터 7층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조정석 이사장은 “지난 4월 28일 연합회 등 4단체장들과 회동을 갖고 연합회 산하에 인쇄물제값받기 운동본부를 설치, 인쇄용지 가격 급등에 따른 대책마련, 인쇄산업 사업영역 피해사례의 현황 파악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하여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기로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이어서 조정석 이사장은 “중구 인쇄산업개발진흥지구에 대한 1차 심의가 서울시에서 지난 4월 30일에 통과되었다”며 “오는 12월경에 서울시 최종 심의를 거쳐 인쇄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 및 진흥계획 승인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 부의사항인 2010년도 1/4분기 사업현황 및 재무제표 보고에 이어 상무이사 추천 결의안에 따라 현 송철의 상무이사가 유임되었다. 이밖에도 인쇄산업개발진흥지구 개발계획(안) 용역의뢰를 위하여 기능활성화기금을 사용하기로 결의하였다.

### 인쇄문화인남시회 시조회 개최



인쇄문화인남시회(회장 한용근)는 지난 4월 17일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모란지저수지에서 시조회를 개최했다. 30여명의

강태공들이 참여한 이날 시조회에서 한용근 회장은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연일 이어졌지만 따뜻한 날씨로 우리를 축복하는 것 같다”며 “월척을 잡는 것보다 인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에 더욱 행복했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이날 시조회의 1등인 대어상은 38cm의 대어를 낚은 조대진 북청사 대표에게 돌아갔으며, 2등 홍수용 홍이인쇄 대표, 3등은 김남수 청아문화사 대표가 차지했다.

### 기술협회, ISO/TC130 간사기관 지정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회장 김진배)가 최근 ISO/TC130 간사기관으로 지정됐다. 기술표준원의 간사기관 지정 통보는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2조 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운영요강 제6조 제3항에 의거한 것으로 이를 통해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는 인쇄 및 관련 산업의 국내외 표준화 업무를 추진함과 동시에 TC130 전문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이로써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는 국내뿐만 아니라 ISO에 공식 등재돼 한국 그래픽 기술 분야의 활동을 지원하는 대표 기관으로 공인받게 됐다.

기술표준원은 국가표준(KS)화 및 국제표준(IEC/ISO)화 업무를 관장하는 지식경제부 산하로 안전, 성능, 환경, 보건의료, 교통, IT, 스마트그리드 문화서비스 분야 등 산업전반의 선행적인 표준화 기반 구축을 통해 무역상의 기술장벽(WTO/TBT)으로 대두되는 통상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고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국가표준의 세계화(Global Standards)를 추진해 오고 있는 기관이다.

### 서울인쇄센터, 공동이용장비 도입 계약 체결



(재)서울인쇄센터(이사장 조정석)는 한국하이델베르크(주)(대표이사 김범식)와 지난 4월 9일 공동이용장비 도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서울시의 인쇄업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동이용장비는 하이델베르크의 CTP 출력장비인 PlageSetter인 수프라세터 105와 프리넥 프리프레스 워크플로, DTP, CMS, 교정시스템, 이미지캡처 등 관련 장비 및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장비는 서울인쇄센터 내 2층 교육장에 설치되며, 디지털로 급변하는 인쇄환경에 첨단시스템의 설치가 어려운 영세 인쇄업체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인쇄업체의 원가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서울인쇄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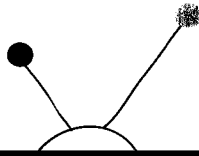


서울인쇄센터는 ‘제5회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와 관련하여 지난 4월 26일 2층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용식)를 개최했다. 정용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5회를 맞이한 서울인쇄대상에 많은 우수 인쇄물이 출품될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공모전 참여증대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서울인쇄대상 조직위원장 명의의 부상 수여, 수상작에 대한 가점제도 등 다양한 형태로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서울인쇄대상 참가비는 종전 1작품당 3만원에서 1개 업체당 3만원으로 인하하여 출품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응모는 종전과 동일하게 1업체당 최대 3작품(동일 작품 2점 출품)까지 가능하다.

문의 : 02-2278-3081



### 인쇄학회, 춘계 학술논문발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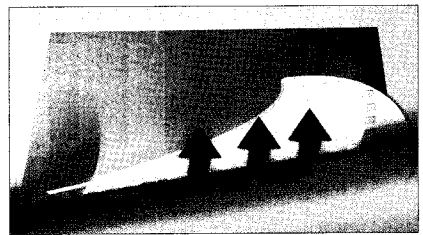
인쇄학회(회장 구철회)는 지난 5월 28일과 29일 이틀간에 걸쳐 부산 해운대 한화콘도 대강당에서 2010년도 춘계 학술논문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논문발표회는 부경대학교 남수용 교수의 '인쇄전자용 Ag Paste현황과 적용분야'에 관한 초청강연을 시작으로 제이엘씨(주) 산학기술연구소 문길환 연구소장의 '무기 ETO의 휘도향상 및 소비 전력 저감을 위한 잉크 Recipe 및 인쇄기법에 대한 연구' 등의 학술발표로 진행되었다.

오후에는 성도솔루원 김민수 상무의 '웹 톱 퍼블리싱', 다이니프스크린코리아 심홍열 대리의 '디지털 인쇄기에 대한 최신 동향', 동양잉크 기술연구소 김동춘 책임연구원의 '친환경 오프셋 잉크 리포트' 등의 산업체 기술보고가 있었으며 부경대 송경철 박사가 '인쇄 표준화와 CMS'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인쇄학회 관계자는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처음 개최되는 학술논문발표회여서 이번 행사에 의미가 각별하다고 전했다.

면 기여를 하는가에 대한 근거가 포함된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심사위원단은 프로젝트의 접근법과 방법론, 혁신의 정도, 사용된 기술, 회사와 최종사용자를 위한 프로젝트의 가치 및 이점과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 지명 추천할 프로젝트를 선정해 왔다. 아그파그래픽스의 후보 선정은 이러한 지명 추천은 심사위원 모두가 수년 동안의 당사의 Thermofuse™ 기술을 발명, 연구 및 개발하고 광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에이버리 데니스, Fasson 에어 이그레스 라벨 런칭

에이버리 데니스는 최근 전기전자 및 내구성 분야의 완벽한 라벨링을 위한 Fasson에어 이그레스(Air Egress)



라벨을 개발했다. 에이버리 점착라벨 사업부 아·태지역 내구성라벨 분야 디렉터인 카르멘 추아(Carmen Chua)는 "Fasson 에어 이그레스의 독특한 구조는 피착면과 라벨 사이로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고 가스 방출과 공기 간힘으로 인한 기포가 즉시 사라져 잘못된 라벨링으로 인한 불량률 현저히 줄이고 제품의 미적 완성도를 높여 준다"고 말했다.

에어 이그레스 기술은 표면지의 점착면에 보이는 특유의 미세 엠보싱 구조에 있다. 세밀한 격자무늬 구조로 표면에서 가스가 방출되거나 라벨 밑에 공기가 갇혔을 때, 자연스럽게 공기를 배출 시키도록 고안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라벨링시의 기포로 인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내환경성이 뛰어난 Fasson Air Egress 라벨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기포나 굴곡 없이 말끔한 부착력을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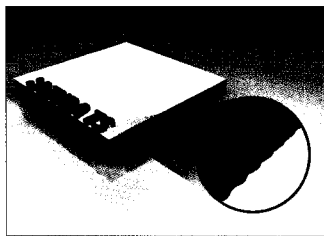
카르멘 추아는 "Fasson 에어 이그레스는 부착 시 라벨의 변형을 최소화 하고 재부착으로 인한 불필요한 작업시간과 원단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대형물량을 위한 자동 라벨링에도 적합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에이버리 데니스는 전 세계의 라벨 인쇄가공회사들이 수익성 높은 전기전자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인쇄 · 프리프레스뉴스

### 아그파 아주라TS 시스템

#### 2010년 '최고특허혁신상' 후보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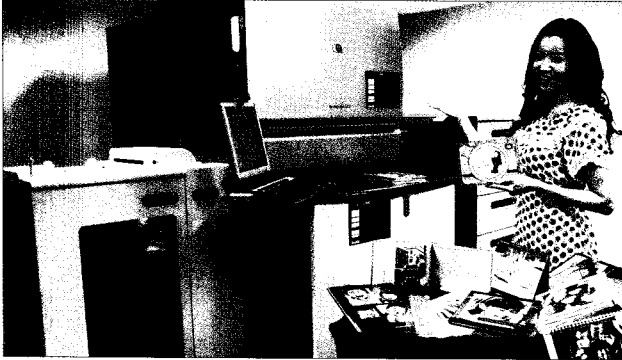
아그파그래픽스의 무현상 판재인 아주라 TS 시스템이 2010년 최고특허혁신상의 네 후보 중 하나로 선정됐다. 아그파코리아에 따르면 이 상은 EU에서 유럽 특허



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회사와 그 회사의 고객 모두에게 경쟁적 이점을 제공한 것이 증명된 혁신적인 제품이나 시스템에 매년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심사위원단은 벨기에의 유력 무역 잡지인 Industrie Technisch & Management (ITM)이 주도하는 독립적인 기술적, 지적 재산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최고특허혁신상'의 후보는 32개의 지명 추천된 프로젝트 중에서 선정 되었으며 참가사들은 그들이 승인 받은 유럽 특허가 혁신적이고 성공적인 제품이나 시스템으로 시판되는데 어

## 한국HP, 아비즈에 'HP 인디고 2호기' 제공



한국HP(대표 스티븐 길)는 지난 4월 22일 디지털 인쇄 전문 기업 '㈜아비즈(<http://www.photoabyz.com>)'에 'HP 인디고 프레스5500' 2호기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개인 맞춤 POD(Printing On Demand) 서비스를 하고 있는 ㈜아비즈(Abyz)는 기존 대량생산 오프셋 개념의 인쇄를 탈피하고 다품종 소량으로도 우수한 품질의 인쇄를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인쇄업계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업체이다. 특히 ㈜아비즈는 지난 2007년 업계최초로 'HP 인디고 프레스5500'을 도입해 출력 업계에서 새롭게 디지털 프린팅의 개념을 처음 선보이면서 온라인 개인맞춤 출판시대에 발맞춰 디지털인쇄 업계의 선두주자로서 서비스를 해왔다. 또한 ㈜아비즈는 온라인 자동 인쇄 주문처리W2P(web to print) 시스템을 구축하여 타 업체보다 더욱 더 빠른 온라인 인쇄 출력을 경쟁력으로 삼고 있으며 사용자가 직접 쉽게 편집/주문/결제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하며 포토풀, 포토캘린더, 포토카드 상품 등 사진과 디지털 인쇄를 접목시켜 기존 인쇄 매출 외 포토관련 부가상품 매출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

㈜아비즈 송창훈 대표는 "HP 인디고 프레스 추가 도입을 통해 고객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타사보다 한 발 빠르게 제공할 수 있었다"며 "이번 2호기 도입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고객들이 원하는 다양한 POD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출력 서비스를 선도하는 업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가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HP 이미징 프린팅 그룹 그래픽 솔루션 비즈니스 김병수 이사는 "HP 인디고를 사용한 많은 고객들이 성능과 출력 품질에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어 뿌듯하다"며 "한국과 같이 트렌드에 민감한 소비자들에게 최상의 POD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HP가 더욱 노력을 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 캐논코리아, 창립 25주년 기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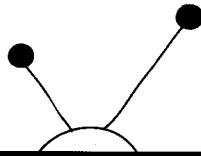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대표이사 김천주)은 창립 25주년을 맞아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롯데그룹 신동빈 부회장과 일본 캐논의 우치다 사장 등 롯데그룹과 캐논그룹 관계자와 파트너사, 협력사 등이 참석해 창립 25주년을 축하했으며, 캐논코리아 안산공장에서는 복합기 수출 300만대 기념식도 함께 가졌다.

캐논코리아는 지난 1985년 한국의 롯데그룹과 일본의 캐논사가 50대 50으로 지분을 투자해 설립한 이래로 25년 동안 견고한 파트너십을 가진 한일합작기업으로 전례를 찾기 힘든 모범적인 성공사례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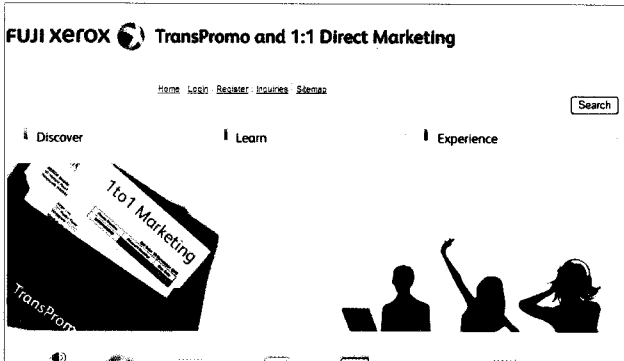
디지털 복합기, 레이저 프린터, 잉크젯 프린터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매출 4202억, 자체 개발 복합기 누적수출 대수 300만대를 넘어서는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문기업으로 성장했다.

캐논코리아 김천주 사장은 "1985년 국내사무기기 시장에서 20년 이상 늦은 후발주자로 출발했지만 롯데그룹과 캐논그룹간의 파트너십과 캐논코리아 임직원의 끊임없는 도전정신으로 회사를 여기까지 일구어 왔다"며 "지난 25년 동안 우리나라 사무기기 역사와 함께 온 캐논코리아는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기술을 선도하고 문화를 창조하며 사회기여와 환원을 통해 새로운 사무기기의 미래를 열어가는 개척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캐논의 우치다 사장은 축사를 통해 "롯데와 캐논은 해를 거듭하면서 우호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폭넓은 지원을 받아 이번 기념식을 맞게 되었다"며 "개발·생산·판매 모든 분야에서의 노력과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밝혔다.



## 후지제록스, 트랜스프로모와 1:1 다이렉트 마케팅 웹사이트 오픈



한국후지제록스(대표 정광은)는 지난 5월 3일 디지털 인쇄 시장의 성장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다이렉트 마케팅 컨셉인 '트랜스프로모'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는 '후지제록스 트랜스프로모 & 1:1 다이렉트 마케팅' 웹사이트(www.fujiflex-transpromo.com)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 웹사이트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1:1 마케팅 및 트랜스프로모 서비스 제공 업체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트랜스프로모(TransPromo)'는 명세서, 청구서, 보험증권 등의 문서에 고객 맞춤형 광고 및 판촉 메시지를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다이렉트 마케팅(Direct Marketing)의 혁신적인 도구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후지제록스 엘렌 블랑쉐 마케팅부장은 "DM 분야가 끊임없이 진화함에 따라 관련 전문 업체들도 새로운 마케팅 도구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후지제록스가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활용하면 고객 커뮤니케이션, 광고 캠페인 계획 수립, 비용 개선 및 업무 효율성 향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후지제록스, 땡큐 컬러 UCC 이벤트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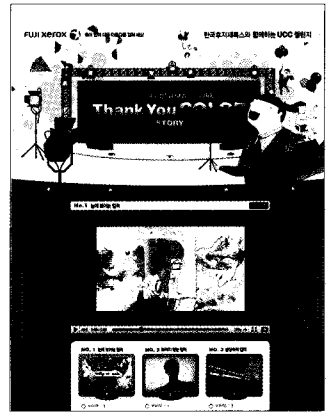
한국후지제록스(대표 정광은)는 자사의 신규 광고캠페인 '땡큐 컬러(Thank You COLOR)'를 기념하는 UCC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감각적이고 개성 넘치는 3편의 UCC는 1분 내외의 독립된 에피소드로 구성되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물감과 종이의 느낌을 활용해 재미있게 나타난 '눈에 보이는 컬러', 우리시대의 평범한 직장인에게 숨겨진 특별함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

는 내용으로 풀어낸 '보이지 않는 컬러', 도심을 가로지르는 형형색색의 종이비행기를 감각적인 영상미로 표현한 '상상 속의 컬러' 등 각기 다른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UCC 제작을 위해 손우형, 한대희, 송우진 등 국내 정상급 CF 감독 3명이 참여했으며, 이벤트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각 CF 감독들이 말하는 UCC 제작에 대한 생생한 인터뷰를 볼 수 있다.

한국후지제록스 한옥경 홍보팀장은 "누구나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UCC 영상을 통해 '컬러'와 '한국후지제록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친밀도를 높이고자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컬러를 주제로 한 색다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직장인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보다 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성진에드컴, DTPIA POD 센터 오픈식 개최



(주)성진에드컴(대표이사 이정희)은 지난 5월 10일 DTPIA POD센터를 신설하고 서울 충무로에 소재한 국일빌딩 2층에서 오픈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인쇄업계 관계자들을 포함,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찬우 POD 센터 운영책임 과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개회선언과 내빈소개, 축사 및 인사말, POD 센터 소개, 동영상 시연, POD 인쇄 장비 시연 등으로 이어졌다.

이정희 대표이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성진에드컴은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동안 어려움도 많았지만 과감한 장비투자과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을 기울여 온 결과 견고한 디지털 인쇄기술을 바탕으로 소량 다품종 인쇄, 가변 데이터 인쇄 등의 신기술을 과감하게 적용해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 대응했고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동영상 시연에서는 인쇄시장의 흐름을 비롯해 POD 인쇄 및 가변 데이터 인쇄에 대한 이해와 실제 적용사례와 제작공정을 알기 쉽게 소개했다.

최근 대전에 DTPIA 대전센터를 개설한 바 있는 성진에드컴은 고객만족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DTPIA라는 브랜드를 통해 최고의 품질, 신속한 납품, 최저의 가격을 위해 다양한 인쇄물의 형태를 제작하고 있다. 최근 POD센터 신설로 전국의 고객을 대상으로 POD 인쇄 책자와 낱장 단행본 인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번 HP 포토카페에서는 다목적 사진출력장비 ‘HP 포토스마트 ML 1000 미니랩 프린터’를 비롯해 편집기능을 이용해 현장에서 직접 상품화할 수 있는 HP 오더스테이션, 사진출력물 편집·디자인을 한글버전으로 지원하는 포토센터 4.1 등이 활용된다. ‘HP 포토스마트 ML1000 미니랩 프린터’는 혁신적 기술의 다목적 프린터로 프리미엄급 4×6인치 사진을 시간 당 최대 1500매까지 빠르게 출력하는 등 고 용량의 사진을 초고속으로 출력한다. ‘HP오더스테이션(HP Order Station)’은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이 터치스크린을 통해 다양한 편집 기능을 이용하여 포토북, 포스터 등으로 현장에서 직접 상품화 하고 주문 입력할 수 있는 프린팅 서비스다.

본 전시회는 올해 6·25전쟁 60주년을 기념해 과거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자 특별 사진 기획전과 DMZ 사진영상전으로 기획되었으며, HP는 DMZ 사진 300여 작품을 출력 지원한다. HP 포토카페는 ‘DMZ사진 영상 전’이 전시되는 11월 말까지 운영된다.

### 한국HP, 전쟁 기념관 ‘DMZ사진 영상 전’ 내 HP 포토 카페 오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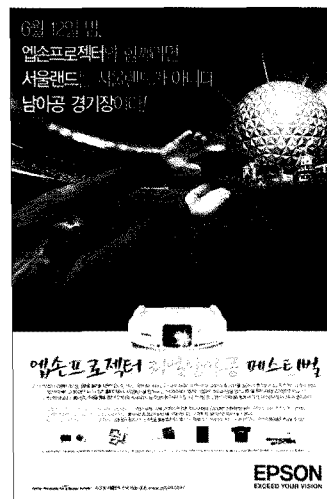


한국HP(대표 스티븐 길)는 지난 5월 17일 6·25전쟁 60주년을 기념해 전쟁 기념관에서 전시 중인 ‘DMZ(비무장지대) 사진영상 전’ 내 HP 포토카페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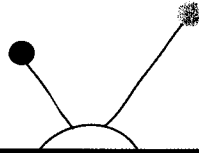
전쟁기념관 내 설치된 HP 포토카페에서는 전쟁기념관에 전시되는 DMZ 사진 작품뿐만 아니라, 개인이 촬영한 사진을 다양한 사이즈로 인화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사진을 직접 편집 및 제작하는 포토북을 비롯해 풀라주(30.48cm×45.72cm) 인화 등 다양한 포토 상품을 서비스한다.

### 한국엡손, 프로젝터 리얼남아공 페스티벌

한국엡손(대표 구로다 타카시)은 2010남아공월드컵 기간을 맞아 프로젝터 고객을 대상으로 초대형 공동응원 프로젝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 기간 동안 엡손 프로젝터를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는 ‘All the reds’ 티셔츠가 제공되며 제품 사용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엡손 프로젝터로 상영되는 서울랜드 야외 공동응원전에 초대한다. 공동응원전은 엡손 프로젝터를 사용하는 고객이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행사 홈페이지(www.epson.co.kr/Reds)에 응원사연과 참여인원을 등록하면 추첨을 통해 6월 12일과 17일 저녁 8시 30분부터 서울랜드 야외 삼천리 극장에서 진행되는 응원전에 각각 2000명씩 초대한다.







## 한국어도비, CS5 신제품 발표회 개최

한국어도비시스템즈(대표이사 지준영)는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스위트 5’ 한글버전을 사용자들에게 공식 소개하는 ‘어도비 CS5 신제품 발표회’를 개최했다.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 1, 2 전시장에서 열린 ‘어도비 CS5 신제품 발표회’에는 국내·외 어도비 CS 국제공인전문가들과 국내 인쇄·웹·비디오 업체를 선도하는 전문가들의 강연이 진행됐다. 주제는 ▶크로스 미디어 시대의 콘텐츠 디자인 및 퍼블리싱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한 온라인경험의 미래 ▶64 비트 성능을 통한 차세대 디지털 시네마 ▶포토샵 인 더 원더랜드(PHOTOSHOP IN THE WONDERLAND) 등으로, 전문가들의 최신 기능 활용 노하우 및 사례, 업계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CS5의 새로운 툴과 서비스, 혁신적인 워크플로가 소개됐다.

지준영 한국어도비시스템즈 대표이사는 “어도비 CS5는 디자이너와 개발자들에게 최상의 작업 환경을 제공하며, 다양한 미디어와 디바이스를 위한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라며 “한국 사용자의 크리에이티브 활용 능력은 세계에서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사용자들의 기대가 높은 만큼 한국어도비는 이번 CS5 신제품 발표회를 더욱 내실있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어도비 CS5 제품군은 대표적인 크리에이티브 툴들의 기능이 대폭 향상되어 디자이너와 개발자들의 워크플로를 눈에 띄게 향상시켜 주며, 웹사이트 등에서 정보를 수집, 저장, 분석해 주는 옴니추어(Omniture) 기술이 적용되어, 사용자로 하여금 디지털 콘텐츠와 온라인 마케팅 효과 측정 및 이를 최적화 하는 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디자이너와 개발자 간에 더욱 원활한 협업 환경을 제공한다.

## 리소코리아 전국 대리점 컨퍼런스 개최



리소코리아(대표 우에무라 사토시)는 지난 4월 23일 웨스틴 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2010 제3회 리소코리아 전국 대리점 컨퍼런스’를 열었다.

이번 컨퍼런스는 전국 대리점 관계자 60여명을 초청하여 2010년 영업정책 및 제도개선, 각 대리점별 우수사례 발표, 2009년 실적에 대한 시상과 포상으로 파트너십과 유대관계를 강화하였으며, 투 컬러 인쇄기 MZ시리즈와 신형 고속 반복분리기의 발표와 시현으로 초청 관계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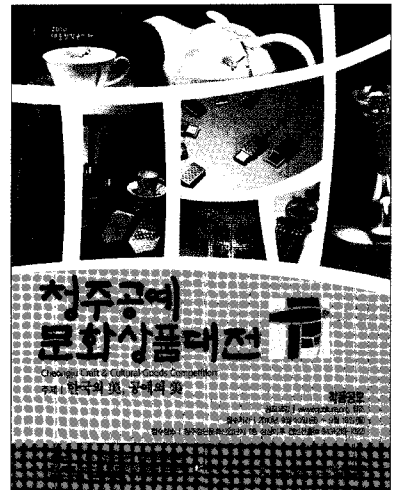
특히, 이번 행사에서 선보인 MZ시리즈는 인지효과가 높은 투 컬러 인쇄기로 분당 최고 150매 인쇄가 가능하며, 2개의 드럼이 탑재돼 원 컬러 인쇄는 물론 투 컬러 인쇄도 빠르고 간단하게 작업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력의 완성 제품이다. 또한, 새롭게 발표된 신형 고속 반복분리기는 자동으로 인쇄 부수를 분리해주는 장치로, 기존 제품의 단점인 약 10초간의 멈춤 현상을 보완하여 인쇄 시 반복분리기 기능을 동시에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기존제품에 비해 시간을 단축시켜 더욱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리소코리아 관계자는 “인쇄기와 고속 반복분리기를 같이 사용하면 유지비용 절약과 업무시간 단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본사와의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대리점 관계자들에게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홈페이지\_ [www.risokorea.co.kr](http://www.risokorea.co.kr)

## 청주공예문화상품대전 10월 개최

제5회 청주공예문화상품대전이 ‘한국의 미, 공예의 미’를 주제로 오는 10월 청주에서 개최된다.

청주시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은 한국공예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예문화상품을 개발하며 우수작가를 발굴하기 위해 격년제로 개최해 온



청주공예문화상품대전이 올해는 '한국의 미, 공예의 미'를 주제로 10월 12일부터 34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청주공예문화상품대전은 도자, 목칠, 금속, 섬유, 유리 등 공예의 모든 장르에 걸쳐 공모하며, 9월 10일부터 4일간 작품을 접수한다. 또 9월 중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뒤 10월 12일부터 11월 14일까지 34일간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컨벤션홀에서 전시한다.

청주공예문화상품대전의 총 시상금은 5500만원. 일반상품 공모전과 기획상품공모전으로 구분해 작품을 공모하며 대상(일반상품 500만원, 기획상품 1500만원)을 비롯해 금상 은상 동상은 상금과 트로피를, 특별상 장려상 입선은 상장을 수여하고 수상작 모두 전시를 하게 된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작가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공모전은 일반상품공모전의 경우 도자 목칠 금속 섬유 유리 등 공예를 소재로 하고 한국의 미적 가치를 표현한 문화상품이어야 하며 1인당 3점 이내로 응모할 수 있다.

한편 청주시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격년제로 공예문화상품대전을 개최해 오고 있으며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의 가치를 문화상품으로 개발하는 등 지금까지 80여종의 상품을 개발, 판매해 오고 있다. 이들 상품에 대한 매출액도 2006년 3억원, 2007년 4억5천만원, 2008년 4억5천만원, 2009년 5억2천만원 등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면서 직지의 도시 청주의 도시마케팅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 고은사진미술관, 다큐멘터리 사진 세미나 개최

고은문화재단이 주최하고 고은사진미술관이 주관하는 제3차 다큐멘터리 세미나가 오는 6월 12일 오후2시부터 부산시 해운대구에 위치한 고은사진미술관 제1전시관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 현대사진에서의 다큐멘터리 사진의 의미와 가치 : 예술사진과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열리며, 제1부는 이재구 고은사진미술관 관장(경성대학교 사진학과 교수)의 사회로 정주하(백제대학교 사진학과 교수)교수가 발제를 한다. 제2부는 이상일 고은사진미술관 다큐멘터리 디렉터의 진행으로 강홍구(사진가), 오형근(사진가, 계원예술대학교 교수), 최광호(사진가) 씨가 다큐멘터리사진과 예술사진의 '차이와 구별'은 가능한 일인가 등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고은사진미술관 관계자는 "디지털 사진술의 대중화로 인해 이제 누구나 카메라를 소지하고, 언제나 사진을 찍는다. 하지만 그러한 풍요 속에서 사진계는 오히려 역설적인 빈곤감에 시달리고 있다. 비록 산발적이긴 하지만 그간 사진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노력마저도 서울 중심이었고, 큰 이슈를 만들어 내지는 못했다. 이에 고은사진미술관은 지역 문화 및 한국사진의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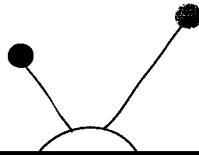
한편 고은사진미술관은 '한국 현대사진에서 다큐멘터리 사진의 의미와 가치'라는 주제로 다큐멘터리 세미나를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향후 △한국의 다큐멘터리 사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 다큐멘터리 사진의 가능성,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051-746-0055

### 서울팩 2010, 1천부스로 확대

(사)한국포장기계협회(회장 이일해)에서 주최하는 서울팩 2010 전시회(www.seoulpack.org)가 참가업체의 증가로 인해 전시 공간을 크게 확대해 개최된다. 서울팩 2010 전시사무국은 서울팩 2010 전시회의 전시장 규모를 추가로 신청하여 2만㎡, 1000부스 규모로 일산 킨텍스 전시장 4홀, 5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서울팩2010은 전시회에 대한 국내 포장업계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지난 4월말을 기준으로 전시회 참가 신청한 업체는 100여개 업체에 달하며 부스 규모는 이미 600부스를 넘어 1홀(1만㎡)의 접수가 조기 마감된 바 있다. 사무국 관계자는 앞으로 전시회 개최 5개월여를 앞두고 이 같은 참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국내 포장 관련 전시회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사무국은 현재와 같은 추세로는 9월 이전에 전시회 출품신청이 200개사 1000부스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서울팩 2010 전시회는 포장종합전시회로 포장기계 업체뿐만 아니라 포장재료, 포장용기, 패키지디자인 분야 등의 관련업체들이 참가하게 된다. 사무국은 화장품 분야의 포장재료, 용기업체들의 전시회 참가가 확정되어 화장품용기 공동관을 구성할 예정이며 식품 분야의 포장재료, 용기업체들을 위한 식품용기 공동관, 자동화 설비를 살펴볼 수 있는 자동화기계 공동관 등 볼거리가 풍성하게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 성도GL / 성도솔루션, 2010 코리아 팩 참가

(주)성도GL/(주)성도솔루션(대표이사 김상래)은 6월 1일부터 4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10 코리아



아팩(국제포장기자재전)전시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이번 전시회는 '미래, 환경 그리고 좋은 포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생산성 향상, 포장의 경제성, 환경친화성, 미래성을 추구하며 포장산업 정보 및 기술정보 교류의 장이 되어 온 전시회이다. 성도GL/성도솔루션은 이번 전시회에 에스코아트웍의 패키징 제품 및 디자인 개발을 위한 구조도면 디자인과 3D 가상 견본 제작을 위한 ArtiosCAD 소프트웨어와 별도의 목형 제작 없이 고품위 패키지 생산이 가능한 Kongsberg XE 시리즈 중에 Kongsberg XE10 Cutting Table을 전시, 직접 시연을 한다.

Kongsberg XE 시리즈는 다양한 소재를 가공할 수 있는 제품으로 마닐라, Single Flute 골판지, 시트지, 플라스틱 등의 합성 소재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오프셋 프린팅용 바니쉬 블랑켓 생산할 수 있으며 패키지 전용 ArtiosCAD 소프트웨어 One-Up 구조도면 생성, 터잡기와 핀 맞춤 기능 등으로 완벽한 인쇄 판 준비와 패키지 생산 공정 관리의 자동 워크플로 솔루션으로 확장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주)성도GL/(주)성도솔루션의 부스는 킨텍스 3~4홀 N. 211이다.

### 성도GL / 성도솔루션, 2010KPCA에서 성과

(주)성도GL/(주)성도솔루션(대표이사 김상래)은 지난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0 KPCA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성도GL/성도



솔루션은 새로운 기술의 제품을 선보여 참관인들의 다양한 욕구와 관심을 충족시켰으며 또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기대하게

하는 전시회 였다고 평가했다. 성도GL/성도솔루션이 출품한 제품 중에 특히 관심을 끌었던 제품은 후지필름 Super Micro Photo Plate [VM-GPC]와 후지필름 New Laser Plotter Film [XPR-7S] 였다. Super Micro Photo Plate [VM-GPC]는 바이올렛 레이저 이미징, 초미립자 Emulsion을 사용한 제품으로 고정밀도 마스터 마스크 생산에 적합한 고해상도 Glass 제품이다. 주요 특징으로 5nm라인의 Fine Pattern 을 실현하고 있으며 명실(Yellow Light)에서 작업이 가능해 향상된 작업 공정 환경을 제공한다. New Laser Plotter Film [XPR 7S]은 Red LD 또는 He-Ne Laser Plotter 를 위해 개발된 제품으로 XPR 7S는 고난도의 초정밀 한 Line Pattern 실현이 가능하다. 특히 결점의 최소화를 실현하여 HDI/Package PCB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완벽한 Sharpness와 Fine Pattern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상액으로 인한 화학적 변화를 최소화, 현상 안정성을 실현시키고 있다. 성도GL/성도솔루션은 이번 KPCA를 계기로 앞으로도 고객들을 최우선으로 한 제품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최고만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에스코아트웍 디지털레터프레스 및 후렉소 라벨 세미나 개최



에스코아트웍(지사장 이도상)은 지난 5월 12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서교호텔에서 레터프레스와 후렉소용 CDI 및 HD 신기술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80여명의 인쇄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미나에 앞서 이도상 지사장은 이번 세미나 개최의 의미는 디지털 레터프레스 및 후렉소 라벨 시장을 위한 에스코아트웍의 솔루션 소개 및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사용되

고 있는 판재 및 제판기의 기술적 사양을 소개하고 인쇄, 패키징, 라벨인쇄 시장에 제공되고 있는 에스코아트워크의 제품군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돕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 출판 및 관련업계 뉴스

### 대한출판문화협회, 제55회 출판포럼 개최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백석기)는 지난 4월 23일 대한출판문화회관 4층 강당에서 '전자책 서비스 계약,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출판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출판포럼은 현행 전자책 서비스 계약서 내용을 검토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준계약서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의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백원근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사회를 맡았으며 박영를 북토피아 대표와 성대훈 교보문고 디지털콘텐츠사업팀장, 김남철 한국이퍼브 사업팀장 등이 전자책 계약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발제자인 김기태 세명대학교 미디어 창작학과 교수는 "출판이 전자적 정보를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바뀌었으므로 출판의 위상과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디지털 콘텐츠의 정의와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등을 명확하게 적은 표준 계약서 모델을 제시했다.

### 범우출판포럼 제10회 학술세미나 개최

범우출판포럼(회장 부길만 동원대학 광고편집과 교수)은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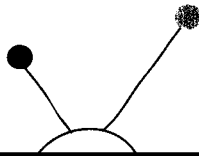
난 4월 29일 오후 5시 대한인쇄문화협회 교육관에서 범우출판포럼 제10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동서양의 미의식과 한중출판비교'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김재운 민주당의원 등 출판 및 인쇄관계자가 참여했다. 윤경민(경인여대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동서양의 미의식 비교'에 대해 윤재준(서울디지털대 디지털영상학부)교수가, '17~18세기 한국과 중국의 경전출판 및 독서문화 비교'에 대해 황지영(숙명여대 연구원)씨가 주제발표를 하였다. 주제발표 후에는 권호순(시간의 물레 대표)씨가 이은선(아동출판기획 아이톡 실장)씨가 토론을 벌였다.

황지영씨는 한중 출판 비교에서 "17~18세기 인쇄출판이 가져온 중국과 한국의 사회변화상을 비교 고찰했으며, 특히 전통 시대 지식의 근간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경서의 출판양상과 그를 둘러싼 독서문화를 비교함으로써 양국 지식 체계의 특징을 비교하고자 했다"라고 말했다.

### 인큐브테크, KT와 콘텐츠 공급계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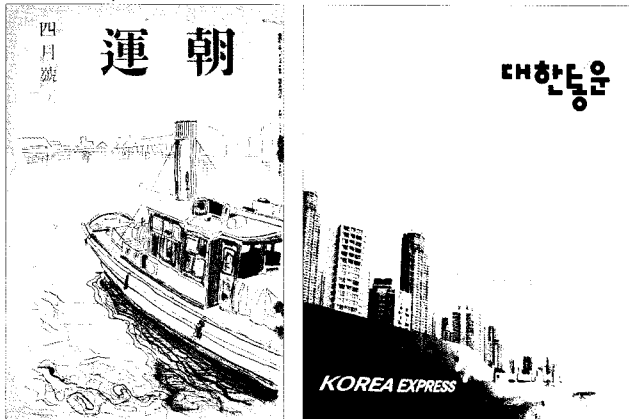
(주)인큐브테크(대표이사 이원경)가 KT(회장 이석채)와 지난 4월 20일 유무선 전자책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주)인큐브테크는 앞으로 신간, 베스트셀러, 인기 단행본 중심의 각종 전자책 콘텐츠를 KT에 공급하게 되고, 이 콘텐츠들은 4월 20일 오픈한 KT의 'QOOK 북카페'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를 위해 (주)인큐브테크는 (주)위즈덤하우스, 토네이도미디어그룹(주), 미다스북스, (주)도서출판예문, 예담, 예담프렌드, 도서출판 디딤돌, 조화로운 삶, 열한번째 행성, 스콜라, 잉크 등의 출판기업들과 콘텐츠 공급에 대한



계약을 맺고 MCP(Main Contents Provider) 로서 KT에 콘텐츠를 공급한다.

(주)인큐브테크의 이원경 대표이사는 “데이코 산업연구소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전자책 시장 규모는 2008년 18억 달러 규모에서 2009년 25억 달러로 성장했으며, 2010년에는 35억 달러, 2013년에는 89억 달러로 2008년 이후 연평균 37.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콘텐츠의 공급만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IT 강국인 우리나라 전자책 시장도 빠른 속도로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 대한통운, 한국 최초 사보 '조운' 발견



1939년 발행된 한국 최초의 사보가 발견됐다.

대한통운(대표 이원태)은 대한통운의 전신인 조선운송주식회사의 사보 '조운' 여섯 권이 최근 발견됐으며, 그 중 1939년 4월호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보로 확인됐다고 지난 5월 10일 밝혔다.

이번 발견으로 195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던 기업사보의 역사가 20여 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흥기 한국사보협회 회장은 “한국사보 출현의 시기를 더 앞당기는 의미 있는 발견”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1940년 간행된 '조선운송 10년사'에 따르면 사보 '조운'의 창간연도는 1937년 2월로 최초 1800부가 발행됐으며, 실물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보 '조운'은 해운, 트럭운송 등 사업관련 지식 소개부터 재테크, 시사상식, 사원이 쓴 수필이나 여행기 등 다양한 코너들로 구성돼 있다. 특히 매 호마다 여성의 복장과 화장, 여성교육

과 각오, 수기 등 여성관련 글을 수록해 여성의 사회활동이 막 활성화되기 시작했던 당시의 시대상황을 짐작케 한다.

한편 대한통운은 현재 격월간 사보 '대한통운'을 발행하고 있으며, 2008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사보부문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 제지뉴스

### 중국 강서성 정부대표단, 무림 본사 방문



무림(대표 김인중)은 중국 강서성 정부의 비서장 및 경제무역대표단이 지난 4월 19일 서울 신사동 무림 본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담효림 비서장 및 경제무역대표단 10여명은 강서성 최대 제지기업인 강서첸밍의 투자사인 무림에 대해 감사를 표했으며 김인중 사장과 담소를 나누며 앞으로의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하고 기념선물을 교환하기도 했다.

### 무림, 2011 무림달력디자인공모전 개최

무림(대표 김인중)은 총 상금 1200만원을 내걸고 '2011 무림달력디자인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달력디자인공모전은 대학(원)생부터 일반인까지 디자인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열린 공모전으로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상상력과 기발한 아이디어가 결합한 1년



14개월용(2010년 11월~2011년 12월)캘린더를 제작한다.

이번 공모전은 회화, 사진, 공예, 조각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 참가자들이 아이디어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독창적인 작업이 가능하며 이를 격려하기 위해 무림페이퍼는 공모전 포스터도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스마트폰을 형상화해 관심을 끌었다. 자세한 내용과 참가신청서는 무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02-3485-1529, 1699로 하면 된다.

홈페이지\_ www.moorim.co.kr

### 무림, 업계 처음으로 PEFC 인증 획득

무림페이퍼와 무림SP는 최근 국내 제지업체로는 처음으로 PEFC(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 schemes: 범유럽산림인증)인증을 획득했다.

무림페이퍼와 무림SP는 지난 2007년과 2008년에도 각각 FSC 인증도 획득한 바 있어 앞으로 해외 선진시장에 대한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PEFC와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는 세계적인 산림 보존단체로 산림을 보존하기 위해 친환경기업에게 국제인증을 부여하는 비영리기관이다.

### 무림, 네오클럽21 초청행사 개최



무림(대표 김인중)은 지난 5월 13일부터 이틀간 네오클럽21 초청행사를 가졌다. 무림의 주요 고객사로 구성된 네오클럽21 회원 및 실수로 거래처 대표 19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무림 P&P 일관화공장 현장 견학과 함께 부산 해운대CC와 아시아드 CC에서의 골프 라운딩으로 진행됐다. 네오클럽21 회원사들은

내년 6월 국내 최초로 건설되는 펄프·제지 일관화공장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중인 무림P&P를 방문해 무림그룹의 비전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무림과 각 사 간의 상호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현재 절반이상의 공정완성률을 보이고 있는 초지공정을 비롯, 일관화공장의 각 공정별 현장을 직접 돌아봤다.

### 한솔제지, 고객만족센터 오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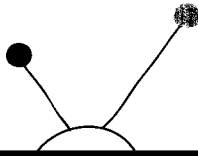
한솔제지(대표 오규현)는 최근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 제공을 위해 C/S(고객만족) 센터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고객만족센터의 오픈은 서비스 대응 시간 단축 및 고객불만요인 개선 활동을 위해 경쟁사에 비해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고객 서비스 품질을 지속 경쟁우위 요소로 선점해 나가는 한편 고객 중심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라고 한솔제지는 소개했다. C/S 센터 발족에 따라 변화된 사항은 신속한 클레임 서비스를 위한 선보상 후정산제 및 지역 거점별 서비스 담당자 운영, 고객 접근 편의성 향상을 위한 온라인 고객불만 접수 시스템 구축 등이다. 또한 고객에게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담당자의 기술력 향상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인쇄 기술 교육 및 발표회를 정례화해 운영하고 있다. 한솔제지의 클레임 서비스를 담당하는 정대영 대리는 "C/S 센터를 운영한 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한층 빨라지고 전문화된 서비스 처리로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한솔제지는 C/S센터 운영을 통해 고객과 소통의 폭을 넓히고, 고객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솔제지, 천안공장 환경친화기업 지정

한솔제지(대표 오규현)는 최근 특수지를 생산하는 천안공장이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장항공장, 대전공장에 이어 전 사업장이 '환경친화기업'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환경친화기업 제도는 단순히 환경규제만을 준수하는 규제 중심의 환경정책





에서 벗어나 기업 스스로 사업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환경목표를 설정해 자율적으로 환경개선을 도모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한솔제지는 지난 2007년 국내 최초 친환경 고급인쇄용지 출시를 통한 환경 경영을 시작한 이래 2009년 전 사업장에 대한 환경보호 국제 인증(FSC) 획득, 그린교과서 용지에 대한 GR(Good Recycled) 마크 인증을 받은 바 있다. 한솔제지는 최근 국내 제지사로는 처음으로 재생원료를 30% 배합한 그린아트, 그린매트지 제품을 출시했으며 앞으로 홍보를 통해 국내 재생지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만로랜드 프린트밸류, 꼼꼼한 1440° 서비스

만로랜드는 인쇄기를 둘러싸는 1440° 서비스로 인쇄 시스템 외에 고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장 리더로서 그 위치를 더욱 견고히 하고 있다. 프린트밸류(PRINT VALUE)브랜드는 이런 능력을 보여주며 시장에서 그러한 능력을 정착시키고 있다. 즉, 종합적인 고객 관리 시스템인 printservices 360°, 만로랜드의 인쇄재료인 printcom 360°, 첨단 네트워크 통합 도구인 printnet 360°, 그리고 모든 상담 서비스의 총체인 printadvice 360° 등이 프린트밸류 브랜드 상품 계열로 만로랜드는 인쇄기와 관련하여 자체 전문성에 전력을 기울이며 고객에게 확고한 부가가치를 제공한다.

한편, printservices는 개별 고객별 맞춤 상담, 총체적 관리, 전문적인 프로젝트 관리와 최대 시스템 유용성 및 높은 인쇄 품질을 위한 신속한 대응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printcom은 빠른 주문 납기를 자랑하며 인쇄과정의 지원과 보호, 인쇄품질 최적화, 신뢰할 수 있는 인쇄시스템 유지등을 장점을 갖고 있다. printnet는 생산 유연성을 높이며 첨단 기술 채택 및 용이한 업그레이드를 실행하는 모듈 구조 및 기존 시스템과의 뛰어난 통합성 등이 장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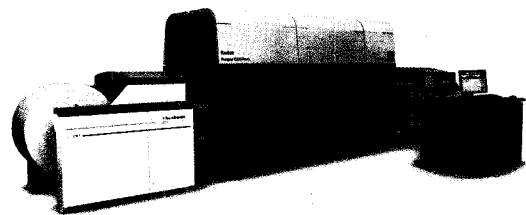


### 해외뉴스

#### 더스트, UV프린터 더스트 Rho 162 TS 선배

3M에서 옥외 12년간의 보증프로그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디지털 교통사인시스템이 새롭게 출시됐다. 더스트는 지난 2008년부터 3M사와 협력, 출시한 디지털 교통사인 출력 시스템인 Rho 161 TS의 다음 버전인 Rho 162TS를 올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세계 교통박람회에 출시했다. Durst의 Rho TS는 도로 표지판 전용 롤-투-롤 프린터로 유럽지역에 현재까지 40여대 이상이 설치된 장비다. Rho 600Pictor을 모태로 한 Rho 162 TS는 Rho 161 TS와 같은 노즐 어레이와 히트드 프린트 슬랩을 장착해 특별한 언 와인딩 메커니즘을 장착한 바 있다. Rho 162 TS는 3M 반사지에 3M UV 8800잉크로 시간당 12m의 속도로 인쇄할 수 있다(폭 1220MM 기준). 평판 옵션을 통해 라미네이팅된 금속 표지판에 인쇄가 가능하며 동시에 여러 개의 표지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가 내장되어 있다.

#### 코닥, Kodak Prosper 1000 Press 출시



코닥의 아시아태평양 지부는 지난 5월 5일 흑백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코닥 PROSPER 1000 Press의 출시했다고 밝혔다. PROSPER 1000 Press는 컬러로 필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며 고객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고성능의 잉크젯 웹 프레스 솔루션이다.

흑백 코닥 PROSPER 1000 Press는 프레스와 프레스 및 작업과 다른 작업 간에 일관성을 제공하여 프린터가 쉽게 최대의 생산성과 가동시간에 도달하도록 한다. 코닥 PROSPER 5000XL Press와 코닥 PROSPER S10 및 S5 임프린팅 시스템 그리고 고속 웹 프레스와 마감 기기 및 메일베이스에서의 일렬 디지털 프

린팅을 위한 흑백 무한 잉크젯 솔루션을 포함한다. 아이펙스 2010에서 코닥 PROSPER 5000XL Press가 최초로 공개되었다. 코닥 스트림 잉크젯 기술을 이용한 컬러 프레스는 아이펙스 부스 9-E320에서 시연되었다.

PrintCom Consulting의 Bill Lamparter는 “코닥 스트림 잉크젯 기술과 같은 무한 잉크젯 솔루션으로 생산비용의 감소와 품질에 상당한 향상이 있을 것으로 본다”라며 “PROSPER 제품으로 책, 광고용 우편물 등 잉크젯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분야에 지속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코닥, 넥스프레스 위한 투명 잉크 발표

코닥은 최근 코닥 NEXPRESS Fifth Imaging Unit Solutions을 위한 투명 잉크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코닥 NEXPRESS Red Fluorescing Dry Ink는 육안으로 보기에 투명하지만 자외선(UV)을 비추면 적색 형광을 나타낸다. 잉크로 인쇄가 불필요한 이미지를 만들거나 다양한 인쇄물의 복사 불가능한 바코드에 사용하여 특별 바코드 리더기로 읽을 수 있다. NEXPRESS Red Fluorescing Dry Ink는 의료 처방전 패드, 운전면허증, 행사 티켓과 같은 인증된 문서를 포함한 광범위한 보안 및 재고 관리 어플리케이션에 이용할 수 있다.

새로 선보인 잉크는 일직선의 투명한 바코드나 다양한 데이터 인쇄할 수 있게 하며 각각의 인쇄물이 특별한 정보를 표시하게 할 수 있다. The NEXPRESS Red Fluorescing Dry Ink는 다른 Fifth Imaging Unit Solutions과 교환되므로 인쇄 서비스 제공자가 여러 종류의 인쇄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새로운 잉크는 현재 넥스프레스 인쇄기 사용자들이 현재 고객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 사업을 다른 시장으로 확장하는 기회를 창출한다. 이것은 상업 인쇄업자들이 디지털 인쇄 작업을 보안 문서나 다른 사업으로 확장하게 하고 출판업자가 재고 관리나 자동화 개선으로 이익을 얻는 방법을 제시한다. 상업 인쇄업자들은 후속 마감과 제본 작업을 위한 내부 워크플로에 투명한 바코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코닥의 부사장인 Steve Fletcher는 “코닥 넥스프레스 Fifth Imaging Unit Solutions의 혁신적인 확장은 디지털 인쇄 서비스 제공자가 수익성 있고 성장중인 보안 문서 사업과 운송사업에 참여하도록 해준다”고 말했다.

### DRUPA2012 카운트다운

매 4년 주기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세계 최대의 인쇄 출판 산업전인 ‘드루파(Drupa) 2012’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으며, 2010년 10월 31일 까지 디지털등록 방식으로 신청을 마감한다고 밝혔다. 2012년 5월 3일부터 16일까지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개최되는 이번 ‘Drupa2012’는 인쇄업을 위한 세계 최대의 전문 무역박람회이며 약 50여개 국, 총 1800여 개 기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40만 명의 이상이 관람할 것으로 주최측은 보고 있다. ‘Drupa2012’의 주요 전시품목은 인쇄기기류, 인쇄 관련 용품, 인쇄기술, 제본기계, 인쇄용 잉크, 인쇄제지류, 그래픽아트, 인쇄업과 관련된 포장기술, 인쇄 포장 용품 생산기계, 관련된 재료와 원료 등이다. 주최 측은 이와 함께 관람객들의 입장에서 전시장을 효과적으로 돌아 볼 수 있도록 전시업체 배치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주최측 관계자는 “드루파는 인쇄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의 장소 역할을 해왔으며 어떤 박람회도 드루파 만큼 인쇄산업의 기술과 경제에 대해 광범위하고 깊은 영향을 미치는 행사는 없다”며 “Drupa2012는 과거 어느 때보다 규모가 커질 것이다”고 밝혔다.

### Smartmatic사, 총선에 코닥 인쇄 기술 활용

필리핀의 종합정보관리사인 Smartmatic Total Information Management(TIM)는 필리핀 총선거에 코닥 버사마크 VL4000 프린팅 시스템을 이용한 투표 용지 인쇄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코닥의 서비스 팀인 Pitney Bowes Emtex Software와 Hunkeler AG는 2010년 필리핀 총선거에서 Smartmatic과 협동해 자동화된 선거에 필요한 5천만장 이상의 풀 컬러 개인 투표 용지를 인쇄했고 일정을 앞당겨 인쇄를 완료했을 뿐 아니라 최고 2억 3천만 페소를 절약하는데 기여했다.

코닥 버사마크 VL4000 프린팅 시스템은 해상도 600 × 360dpi의 고품질로 410 fpm(125mpm)의 인쇄 속도에 도달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투표 솔루션의 전제조건인 100%의 다양한 데이터 출력 및 출력 관리 솔루션인 EMTEX VIP 서버와 결합하여 중앙에서 관리되는 인쇄 생산 관리, 실시간 데이터 스트림 변화, 자료 관리 및 작업 설명을 제공한다.